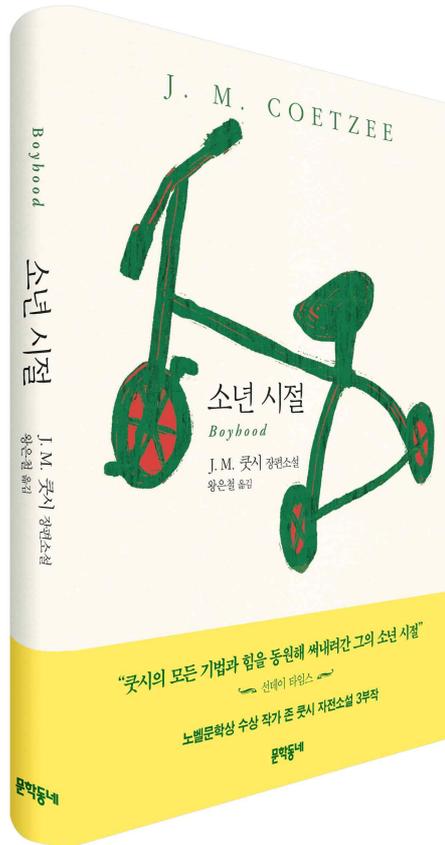


# 소년 시절

Boyhood

J. M. 콧시 장편소설 | 왕은철 옮김



“콧시의 모든 기법과 힘을 동원해  
써내려간 그의 소년 시절”

∞ 선데이 타임스 ∞

한오라기의 감상도 없이 잔인하고 절박하게 써내려간  
순수와 욕망, 고통과 쾌락, 사랑과 증오의 어린 시절과  
성차별, 인종차별, 식민주의, 독재, 폭력으로 얼룩진 남아프리카

“그들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본문 중에서

## **‘우리 시대 가장 과묵한 작가’ 쿷시의 삶과 철학, 그의 작품세계를 이루는 모든 근원**

###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J. M. 쿷시 자전소설 3부작**

『소년 시절』은 작가가 자신의 과거를 아름다운 무지개색으로 채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식민주의와 종족차별로 얼룩진 남아프리카 역사에 얽힌 삶의 한 자락을 현재화하면서 그것의 역사적, 정치적, 윤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 쿷시의 위대성은 이처럼 가족사와 자신의 성장기에 관련된 사적인 공간에도 윤리성, 역사성, 정치성, 문학성을 가미할 수 있는 놀라운 진실성에 있다. 2002년에 발표된 『청년 시절 Youth』과 더불어 『소년 시절』이 쿷시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때로는 비정하다고 생각될 만큼 매물차게 감상이 배제된 투명하고도 정직한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다. \_윤긴이의 말 중에서

노벨문학상 수상, 부커상 2회 수상에 빛나는 ‘남아프리카의 대가’이자 ‘존재의 중추신경을 건드리는 작가’ J. M. 쿷시의 자전소설이 문학동네에서 출간되었다. 쿷시 자전소설 3부작은 ‘우리 시대 가장 과묵한 작가’로 불릴 만큼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기로 유명한 쿷시가 자신의 삶과 철학뿐 아니라 자신의 작품세계를 이루는 모든 근원을 잔인할 만큼 솔직한 서술, 검소한 동시에 응축되고 폭발적인 문장으로 쏟아낸 회고록이자 소설이다. 3부작 중 첫번째인 『소년 시절』은 쿷시가 성차별, 인종차별, 식민주의, 독재, 폭력으로 얼룩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보낸, 순수와 욕망, 고통과 쾌락, 사랑과 증오의 성장기를 다뤘다.

『어린이 백과사전』에 따르면, 유년 시절은 초원의 미나리아재비와 토끼들 사이에서 놀거나 난로 옆에서 동화책을 읽는 데 몰두하는 순진무구한 환희의 시기다. 그의 유년 시절과는 전혀 다르다.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그가 우스터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유년 시절이 이를 악물고 견뎌내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해주지 못한다. \_본문 중에서

쿷시는 유년 시절을 회고하면서 낭만적인 색깔을 덧씌우거나 감상적인 평가를 얹지 않는다. 잔인하고 절박해 보일 만큼 한 오라기의 감상도 없이, 어린 시절의 자기 자신과 가족, 주변 사람들, 당시 사회를 응시할 뿐이다. “『소년 시절』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부분의 진실을 증언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작가의 말을 방증하듯, 『소년 시절』은 자신과 자신의 어린 시절, 혹은 그 무엇에 대해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위해, 진실을 향해 치열하고 집요하게 나아가는 작가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누구를 위해서 쓰겠습니까!”**

2003년 12월 7일, 천오백 명의 축하객이 모인 노벨문학상 시상식에서 노년의 쿷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누구를 위해서 쓰겠습니까!” 자신의 사생활이나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한, 거의 전설적이다시피 한 쿷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자리에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토해내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

그와 동생을 위한, 아니 특히 그를 위한 그녀의 맹목적이고 압도적이면서 자기희생적인 사랑이 그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든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녀는 그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따라서 그도 그녀를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강요하는 논리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쏟는 모든 사랑을 결코 갚을 수 없을 것이다. 평생 그런 사랑의 빛을 안

고 허덕일 것을 생각하자 몹시 당황스럽고 화가 난다. \_본문 중에서

이 여인은 그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목적만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그는 믿고 싶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반대로, 그녀에게는 그가 태어나기 전의 삶, 그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삶이 있었다. 그녀 인생의 어느 시점에 그녀는 그를 낳았다. 그녀는 그를 낳고 그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어쩌면 그를 낳기 전부터 그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따라서 그를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_본문 중에서

『소년 시절』의 화자 쿿시는 어머니의 절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끝없이 신뢰하고 갈구하면서도 거기에 알 수 없는 압박과 부담을 느끼며 벗어나고 싶어하고, 또 그 사랑이 언젠가 효력을 다하지 않을까, 어머니가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지는 않을까 불안해한다. 쿿시는 어머니의 사랑마저도 냉정하리만큼 담담하게 서술하는데, 그 담담함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더욱 절절하게 다가온다. 어린 쿿시는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미묘하게, 때로는 갑작스럽게 변화하고 성장한다. 언젠가부터 어머니의 품을 떠날 날만을 고대하던 십대 소년은 세월이 흘러 더이상 어머니가 곁에 없는 시간들을 살아간다. 그러나 어머니가 보여준 사랑과 희생의 정신, 삶을 마주하는 방식과 태도는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을 맴돌고, 그는 『소년 시절』을 통해 어머니를 추억한다.

### **“남아프리카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남아프리카인, 진짜 남아프리카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쿿시의 작품세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공간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나라의 심장부에서』 『마이클 K』 등 다수의 작품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그곳의 자연, 역사, 정치, 문화, 사회문제는 작품 곳곳에 녹아 있다. 특히 『소년 시절』에는 1950년대 혼란스럽던 남아프리카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당시 남아프리카는 여전히 식민의 잔재를 털어내지 못한 상태였고, 세계대전과 냉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여파로 시름했으며, 민족주의 독재정권이 권력을 장악했고, 오랜 시간 이어진 인종차별로 병들어 있었다. 쿿시는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시대의 혼란을 어렵풋하지만 함축적으로 그려냈다. 『소년 시절』에 담긴 남아프리카는 그의 다른 소설들에 나오는 성, 인종, 식민주의, 폭력에 관한 담론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948년에 공포된 말란 박사의 첫번째 법령을 잊지 않고 있다. 캡틴 마블과 슈퍼맨 만화를 모두 금지하고, 동물이 나오는 만화와 사람을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화만 세관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이다. \_본문 중에서

쿿시는 남아프리카에 정착한 네덜란드계 백인, 아프리카너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쿿시’라는 성 또한 남아프리카에서 아주 흔한 아프리카너 성이다. 지배계급에 해당하는 아프리카너 출신에도 불구하고, 쿿시는 아프리카너어가 아닌 영어로 교육받았으며 아프리카너에 소속감을 느끼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아프리카너보다 원주민과 그들의 아름다움을 동경했고 아프리카너가 만들어낸 식민사관과 편견에 어딘가 모순이 있음을 직시했다. 자신의 출신과 이름에 딸린 원죄 때문이었을까, 쿿시는 남아프리카 땅의 진정한 주인임에도 차별당하고 고통받는 원주민에게 죄책감을 느꼈고 작품을 통해 원주민에 대한 편견과 폭력을 해체하고자 했다.

**“오직 그만이 생각하도록 남겨진다. 그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모든 책과 모든 사람과 모든 이야기를 머릿속에 간직하게 될까?  
그가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렇게 할까?”**

“너, 거기서 뭐해?” 친구가 물었다. “생각하지.”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난 생각하는 게 좋거든.” 곧 같은 반 아이들 모두가 그걸 알게 되었다. 새로 온 아이가 이상하고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 실수를 통해 그는 더 신중해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신중해진다는 것은 언제나 나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적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_본문 중에서

그는 더 어두운 것에 관해 쓰고 싶다. 일단 그의 펜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얼질러진 잉크처럼 주체할 수 없이 흘러갈 것이다. 얼질러진 잉크처럼, 고요한 물의 표면을 질주하는 그림자처럼, 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_본문 중에서

『소년 시절』은 한 작가의 시작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쿣시는 『소년 시절』을 통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모든 사람과 일상의 단면들, 그리고 그 시절의 자신을 곱씹는다. 또래 아이답지 않게 성숙하고 생각이 많으며 어딘가 평범하지 않았던 아이, 서서히 영혼의 어둠과 욕망에 눈을 떠가며 죄책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히곤 했던 그 아이는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간에 작문을 하며 “더 어두운 것에 관해 쓰고 싶다”고 생각한다. 남아프리카 사회의 모순과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을 어렵풋이나마 직시하고 사유하던 아이는 후에 “서구 문명이 기초하고 있는 잔인한 합리성을 해체하고 인간의 심리를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도 있게 해부했다”는 평가 함께 노벨문학상을 수상한다. 소설과 회고록의 경계를 넘나들며 잔인할 만큼 자기고백적이고 폭로적인 화자, 지독히도 신랄하며 직설적인 문체, 절박하고 집요한 사유의 정점을 보여주는 『소년 시절』은 “쿣시의 모든 기법과 힘”의 집합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책 속에서

그는 망가진 느낌을 받는다. 그의 내부에서 계속 무언가 서서히 부서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벽이랄까, 막이랄까. 그는 그 부서짐을 테두리 안에 묶어두기 위해 가능한 한 자신을 꼭 그러안으려 한다.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테두리 안에 묶어두기 위해서. 아무것도 그것을 멈추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_본문 19쪽

언제나 무언가 잘못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 조만간 비밀에 부쳐야 한다. \_본문 46쪽

하지만 회사에 취직하고 싶지는 않다. 어떻게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일 년에 휴가가 이 주뿐인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_본문 55쪽

그는 자신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안다. 나쁘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그는 바뀌기를 거부한다. 바뀌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_본문 57쪽

그는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무정하다. 전반적으로 세상 사람들한테는 거짓말쟁이고, 어머니에게는 무정하다. \_본문 57쪽

그는 거짓말을 한다. 그러나 스스로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_본문 57쪽

그는 어머니와 너무 가깝고, 어머니는 그와 너무 가깝다. \_본문 61쪽

아름다움은 순진함이다. 순진함은 무지다. 무지는 쾌락에 대한 무지다. 쾌락은 떳떳하지 못하다. 그는 떳떳하지 못하다. \_본문 97쪽

사는 내내 아무 생각 없이 자연과 순진함의 길만을 걸어왔고, 동화 속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나 그렇듯 가난하고, 또 그래서 착하고. \_본문 98쪽

이기는 정당이 법을 바꿀 수 있다면, 선거를 왜 하는지 그는 알 수 없다. 그것은 누가 공을 던지고 던지지 않을지를 타자가 결정하는 것과 같다. \_본문 110쪽

그는 아프리카너들이 늘 화를 내는 것은 마음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반해 영국인들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담장 뒤에 살며 마음을 잘 보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_본문 117쪽

너무 가난해서 이사를 할 수도 없었던 그들은 움푹달락 못하고 갇힌 채, 오지 않는 초대장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았다. \_본문 129쪽

그는 그녀와 사랑을 하고 있는 걸까? 이것이 사랑일까? 이런 편안한 너그러움, 가장할 필요도 없고 마침내 이해를 받는다는 이 느낌이 사랑일까? \_본문 151쪽

그는 그들의 노란 눈에서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를 본다. 그것은 체념의 눈빛이다. \_본문 162쪽

그들은 이미 그 값을 계산해봤고 그걸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값, 살아 있음에 대한 값. \_본문 162쪽

그는 죽어가는 자신을 상상할 수는 있어도 그 자신이 사라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자기 자신의 마지막 남은 것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 \_본문 177쪽

아무것도 널 건드릴 수 없어, 네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그에 관한 두 가지 사실, 두 가지지만 결국 하나인 사실이다. \_본문 178쪽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렇게 치욕적인 것을 보며 여기에 있지 않았으면 싶다. 불공평해! 그는 울부짖고 싶다. 나는 어린아이일 뿐이야! 그는 누군가, 어떤 여자가 자기를 안아주고 아픈 곳을 낮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것은 악몽일 뿐이라고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_본문 250쪽

이러한 순간이면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노의 감정 없이 내려다볼 수 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앉아 그가 비참해지도록 밤낮으로 음모를 꾸미는 형체 없는 우울한 집이 아니라, 따분하고 고난으로 가득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그들을 내려다볼 수 있다. \_본문 251쪽

하늘이 열리면 그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런 다음 하늘이 닫히면 다시 자신으로 돌아와 그가 받아들이는 유일한 이야기, 즉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살아간다. \_본문 251쪽

“너도 자식 낳아봐.” 그녀는 비통한 기분이 들면 때로 그에게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너도 알게 될 거야.” 그가 무엇을 알게 될 거라는 말인가? 그것이 그녀가 사용하는 판에 박힌 표현, 과거로부터 들려오는 듯한 판에 박힌 표현이다. 어쩌면 그것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경고로서, 위협으로서 하는 말일지도 모른다. \_본문 253쪽

## 차례

소년 시절 007

웁긴이의 말 261

J. M. 쿣시 연보 273

## 이 책에 쏟아진 찬사

콧시의 모든 기법과 힘을 동원해 써내려간 그의 소년 시절. 절제된 문장들이 우리를 콧시의 세계로 이끈다. \_선데이 타임스

콧시는 언제나, 빼어난 우아함으로 글을 쓴다…… 『소년 시절』은 그의 개인적 장면들이 훌륭하게, 심지어 아름답게 묘사된 작품이다. \_애틀랜틱 먼슬리

지독히도 폭로적이고 직설적이며 감정을 건어낸 작품……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통해 콧시의 예술세계의 숨은 근원을 비춘다. \_뉴욕 타임스

매력적이다. 감성적인 영혼의 회고록. 남은 삶의 원초적 욕구를 전부 흡수해버린다. \_워싱턴 포스트 북 월드

한 작가의 시작을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하는 작품. \_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

신랄하고 잔인할 만큼 매혹적이다. 감정이 폭발할 듯한, 함축적이고 절박한 문장으로 써내려간 그의 기억. \_뉴스데이

책을 덮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독자들을 사로잡는다. \_블 매거진

어린 시절에 관한 강력하고 환멸적인 자화상이자, 그것이 어떻게 타락 이전의 순수와 부조리한 폭력을 아우르는가에 대한 소설. \_커커스 리뷰

『소년 시절』은 사춘기 직전의 두려움, 모순, 분노,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즐거움을 어린아이의 단순 명쾌함과 순수함으로 그려낸 소설이다. \_휴스턴 크로니클

지은이 **J. M. 콧시** J. M. Coetzee

194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태어났다. 케이프타운 대학을 졸업하고 1965년 미국으로 건너가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8년부터 약 3년 동안 뉴욕 주립대학에서 영문학을 강의하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존스홉킨스, 하버드, 스탠포드, 시카고 대학에서도 강의했다. 1972년 고국으로 돌아가 케이프타운 대학 영문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2002년 정년퇴임했다. 이후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해 에들레이드 대학에서 문학을 강의하고 있다.

1974년 『어둠의 땅』을 발표하며 소설가로 데뷔한 콧시는 두번째 소설 『나라의 심장부에서』(1977)로 남아프리카 최고의 문학상인 CNA 상을 받았고, 『야만인을 기다리며』(1980)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마이클 K』(1983)와 『추락』(1999)으로 한 작가에게 두 번 주지 않는다는 전례를 깨고 부커상을 두 차례 수상했으며, 에트랑제 페미나 상, 예루살렘상, 아이리스 타임스 국제소설상 등 많은 상을 받았다. 그리고 2003년 “정교한 구성과 풍부한 대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서구 문명의 도덕적 위선을 날카롭게 비판했다”는 평과 함께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그 밖의 주요 작품으로 『포』(1986) 『철의 시대』(1990) 『페테르부르크의 대가』(1994) 『슬로우 맨』(2005) 『어느 운 나쁜 해의 일기』(2007), 자전소설 3부작 『소년 시절』(1997) 『청년 시절』(2002) 『서머타임』(2009) 등이 있고, 다수의 에세이와 연구서를 집필했다.

옮긴이 **왕은철**

전북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펜실베이니아 클래리언 대학과 메릴랜드 대학에서 각각 영문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대문학>을 통해 문학평론가로 등단했으며 유영번역상, 전속희문학상, 한국어영영문학회학술상, 생명의신비상, 전북대학교 학술상과 수업상을 수상했다.

현재 전북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피의 꽃잎들』 『페테르부르크의 대가』 『마이클 K』 『연을 쫓는 아이』 『전쟁 쓰레기』 등 40여 권의 역서가 있으며, 『문학의 거장들』 (한국연구재단 우수도서) 『J. M. 쿛시의 대화적 소설』 (문화관광부 우수도서) 『애도 예찬』 (전속희문학상) 『타자의 정치학과 문학』 『트라우마와 문학, 그 침묵의 소리들』 (생명신비상, 세종도서 문학나눔도서) 등의 저서가 있다.

- 발행일 2018년 7월 16일
- 판형 128×188, 환양장
- 쪽수 280쪽
- 값 13,800원
- ISBN 978-89-546-5210-0 03840
- 담당 편집 해외문학 1팀 정혜림(031-955-8861, jeanj@munhak.com)